



★좌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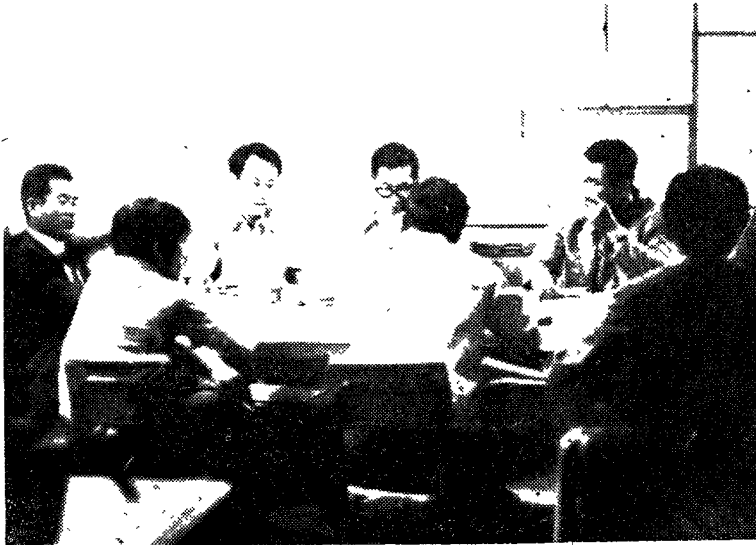
혹서기의 위생관리

일시 : 1973. 6. 12

장소 : 양계협회 회의실

사회 : 김 권 수

<한국사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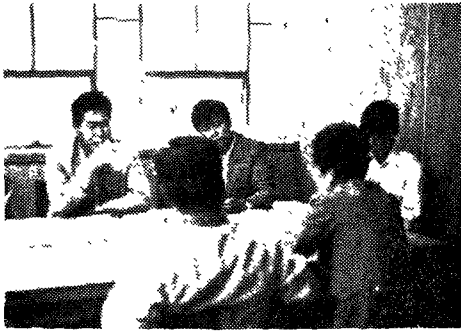


- | | | |
|---|---------|-------------|
| 참 | ★ 윤 경 중 | <서울 부화장 대표> |
| 석 | ★ 최 동 필 | <선린촌 상무> |
| 자 | ★ 최 정 삼 | <정화계원 대표> |
| | ★ 최 상 천 | <광주면 동부면> |
| | ★ 신 옥 식 | <성동구 종곡동> |
| | ★ 한 수 신 | <인산농원판매과장> |

사회 :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실무에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혹서기에 위생관리에 대해 여러 분들이 경험하신 바를 토대로 하여 사양가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온도의 상승과 습도가 많아 지므로 닭에 생리적으로

로 많은 변화가 오기 쉬운데 이러한 때에 대비하여 사양가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좋은 말씀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화계원의 최사장님 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 : 더위가 온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위로 인한 폐사와 난각질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수준을 좀 더 높여주고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모 양계장에서는 노천양계로 30수가 폐사한 예가 있습니다.

해가리 방법은?

사회: 실제로 여름철에 사양하다 보면 사료 섭취량은 떨어지고 단백질 수준은 상승 되는데 이러한 때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고 있는지요?

윤경: 사료공장에서는 여름철에 대비' 류코싸이토준 제제와 비타민제제를 좀더 일찍 넣어 주었으면 하는것이 사육가 입장에서 바라고 싶군요. 현재 단가로서도 양을 조절하면서 1일 섭취량이 120g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모 양계장에서 더위로 12마리의 닭을 죽인 예가 있는데 여름철 개방제사에 있어서 오후 4~5시경의 해 질녘의 직사광선을 무심히 넘기는 일이 많은데 이때 계사 방향이 제대로 안 되면 닭이 더위로 많은 시달림을 받게 되므로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해가리를 해주면 닭이 더위에 시달림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양계장의 경우 가마니로 해가리를 하고 있는데 닭이 죽는일도 없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수: 여름철 온도의 급변화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참 온도가 상승하다 소나기가 올 경우 갑작스런 온도의 변화로 제 질병이 발생하기 쉽지요. 류코싸이토준, C.R.D., 일사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양의 반사를 막기위해 가마니 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커튼을 마당 60~80원에 구입하여 도르레식으로

하여 직사광선을 피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나비가 올 경우도 금방 막을 수 있지요.

최상: 저는 대류현상을 이용한 계사가 어떨까 합니다. 벽을 중간 너자쯤 설치하면 지붕의 온도를 70% 좌우할 수 있고 복사열도 방지할 수 있어 훨씬 시원합니다. 문제는 경제성이 문제인데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사회: 온도의 상승으로 땀이 뭉어져 처리하는데 불편한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최정: 온도의 상승을 막기위해 될수 있는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비타민제제를 조금더 투여하여 더위로 인한 피해를 막고 물을 유수식으로 바꾸어 신선한 물을 공급하면 연변의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경: 저희는 질병관계에 대비해서 일본에서 나오는 소화효소를 물에 타서 1~2회 조리료 뿌려주면 매우 시원할 뿐만 아니라 살균 살충에도 좋고 악취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사판리에 있어서 밤에 더위를 느끼게 되므로 천정에 선풍기를 달아 서서히 돌리면 닭이 밤에 화에 올라가서 피해를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삼화토의 계사바닥

사회: 계사바닥은 어떻게 하면 위생적인 바닥일 수 있을까요?

윤경: 계사 바닥은 콘크리트가 단단해서 좋으나 냄새가 나고, 흙은 계분청소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삼화토(석회+흙)로 바닥을 하면 단단할 뿐더러 계분 청소에도 어려움이 없고 냄새도 나지 않아 아주 적격인 것 같습니다.

신옥: 바닥에 관한 말씀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카바이트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과 산(山)에 있는 백토를 물로 반죽을 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 윤사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바닥이 단단하고 계분청소도 하기 쉽더군요.

사회: 그러면 카바이트의 폐기물 값이 굉장히 많이들 것 같은데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신옥: 가격이 많이들 것 같지만 카바이트 부산물은 카바이트 공장에 가면 그냥 무료로 얻을

수 있지요. 오히려 카바이트 공장에서는 폐기물을 치워주기 고마워 해야 될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닥이 결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철에 계사를 비어두었을때 바닥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부풀어 나갈 염려가 있는데 두께를 15cm 정도로 하면 그런 염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여름철에는 여러가지 질병이 만연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그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 여름철에 저희 선린촌에서는 일부 호흡기병과 CRD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적대장을 통한 용기 난좌등을 일반 소독제에 침전시켜 양역상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차량을 통제 함으로써 여름철 질병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생충 제거는?

최정: 여름철에는 파리 모기가 많은데 각 제약회사의 제품중에는 살충제가 거의 생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 일주일에 두번정도는 살충제를 살포함으로 파리 모기에 대한 피해는 별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 살충제 사용중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약품을 소개해 주십시오.

최동: 저희 농장에서는 D.D V P를 사용하고 있고 농약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사회: 사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 여름철에는 100명단위로 하여 기존량보다 약하게 하여 밤에 닭에 직접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포할때 물통, 모이통의 용기는 치워야 되겠지요.

사회: 곤절이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윤경: 가장 귀찮은 층은 와꾸모인데 꽤찮다는 약들이 너무 비싸서 저희의 경우 농약 디프렐릭스 500g을 15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뿌리면 파리, 모기, 기타 곤충이 거의 다 죽습니다. 매우 효과가 좋더군요. 뿌릴때는 베니다에 고리를 만들어 케이지의 물통을 덮고 뿌

리게 되면 닭에 약이 닿아도 괜찮더군요. 살포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경 관리자가 한가한 시간에 뿌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법을 3년째나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회: 이번에는 인산농원의 한과장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소독제나 살균제는 당장의 살충효과는 있지만 닭의 체내에 축적돼서 인체에까지 미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생각하기를 하수구나 실내소독은 내구본 0.15%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콕시듐 예방을 위해 화염소독을 실시한바 있는데 콕시듐 예방은 물론 닭의 오시스트 등 각종 살충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추할때 개체소독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에는 양성비누제로 병아리를 흠뻑적셔 주되 독성이 없는 것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사회: 도태후 다음 입추전까지의 소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 보통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 하고 1개월 비어 두어야만 된다고 하지만 스킴모 양계가 예전 그러한 공백기간을 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육추시 살충 살균후 호르마린 소독을 하지만 매번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되면 성적이 떨어 집니다.

사회: 올·아웃(all out) 시킨후 오일버너(Oil Burner) 등으로 케이지등 철제와 바닥을 태우고 비누물로 닭고 소독제를 뿌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러한 경험은 있으신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린촌 최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 화염소독의 경우 열소독 이므로 불순물을 태우나 케이지의 경우 도장한 페인트가 타고 쇠가 약해지는 관계로 좋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수: 제가 말한 화염소독은 평사에서 많이 사용하며 케이지의 경우 에지엠식을 사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윤경: 제가 영국에서 본 일입니다만 영국은 계사별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이 아니고 단지별로(3만~3만 6천수)실시하여 단지별 거리 2km 이상으로 하여 올인·올아웃하고 끝나면 2개월을 비워 두면서 약물소독은 하지않고 비누



로 닭아 깨끗하게 말리면 닭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최동: 저희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계란을 2 시간만에 수집할때 마다 소독하는데 기구 일체를 훈증소독하니 간편하고 좋습니다.

이것은 비닐을 이용하면 되며 매우 경제적이기도 하지요.

지방계의 방지방법은?

사회: 이 때까지 병충해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닭의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데 특히 최근에 사료의 질이 나빠져 사료의 저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방계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최경: 저단백 에너지가 오히려 지방계를 생산합니다. 사료만 너무 과다 섭취하고 알은 생산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한수: 지방계가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단백질 16%, 1200Cal, C/P 을 75~78%가 표준인데 단백질의 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모분등을 섞으면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때 콜린, 메치오닌등의 필수아미노산 부족으로 닭에 영향을 초래하게 되어 간이 파열되는 등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 생각으론 현재 1일 130g을 먹는 닭이라면 10g을 줄이고 대신 녹사료 100g을 급여 한다면 영양적인 결함이 없을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추시기에는 제한급이를 하는 것이 좋을것 같군요.

신옥: 제한급이를 기술적으로 못할때는 오히려 닭의 성장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수: 아니지요, 물론 균형을 깨트릴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공급받은 사료공장의 충고를 받아서 사용하면 그런일이 없겠지요.

사회: 현재 여건하에서 사료공장에서는 사양가들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료를 도저히 만들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불리한 여건하에서 사양가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는지요.

최동: 공장에서 C/P 비율의 적정선을 유지해 주고 종합비타민제를 첨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수: 사료회사는 사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C/P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표시된 조성분은 맞지만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어분을 2% 제산해서 배합하면 사료의 조성분을 맞춘다 하여도 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신옥: 결국 양질의 사료를 먹어야 함은 자명한 일인데 사료의 질이 처하되니 양계가는 2층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료규정을 못박는 자체가 모순인것 같습니다.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 생산을 조절하여 이익나는 양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사회: 현재 집에 믹서(mixer)기를 가지고 기초 사료 또는 농축사료를 공급받아 자가 배합하는 사양가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정화계원의 최사장님께서 실제로 자가 배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공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최상: 저희는 사료의 질이 떨어진 후부터 자가 배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도 약간 저렴하게 들뿐만 아니라 산란율은 85%입니다. 조단백질을 16% 열량을 2850Cal 첨가제(비타민등) 0.5%를 기준으로 배합하니 kg당 48원의 단가가 들더군요. 요즈음 단백질 사료로 대두박 120원, 임자박 80~100원, 어분 90~1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회: 자가 배합을 잘못하면 질적인 면에도 문제되지만 실제적으로 구입사료보다 많은 비용이 들 열려가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 제가 자가 배합하여 보니 비용도 적게 들 뿐더러 질에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계가들은 구입사료의 질이 좋지않다고 불평만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협성가축약품회사

가축예방약 치료제 사료첨가제

소독약 기타 일체 총판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미이앤씨 청량리지점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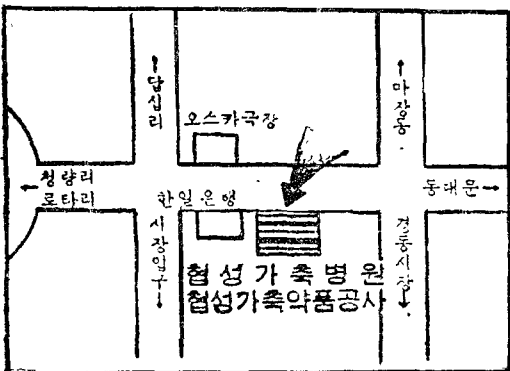
가금진료전문 협성가축약품연

서울 청량리 오스카극장앞

한미이앤씨 청량리지점앞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주간 (92) 7779
야간 (96) 9231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윤경: 이번의 사료파동은 세계적인 파동입니다. 폴투갈에서는 굉장한 사료파동이 와서 양제 산업이 몰락의 위기에 있습니다. 원료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콜린, 메치오닌등이 모자라 심각한 문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일 수록 재래식 방식만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과감히 나아가야 하였습니다.

사회: 사료파동은 이제부터가 더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린촌 최상무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최동: 이런때 일수록 사료공장에서는 솔직하게 사료성분의 부족량을 실토해 주어 어떤 것을 더 첨가하라고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의 연변 방지는?

사회: 음수량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음수량의 변화에 따른 연변, 설사등은 없는지 또 어떻게 급수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 저희는 음수량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먹을 만치 먹도록 하고 늘 깨끗한 물만 급여하니까 음료수에 의한 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매일 계분청소를 하고 있는데 연변현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최동: 음수량의 조절보다 물의 질이 문제가 되겠지요. 저희는 국내에서 나오는 자동 펌프시설로 여름철에 물이 뜨거워 지는 것이나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옥: 저희의 경우 물통소제 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하여 이틀에 한번 바짝 말려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한수: 음수문제에 있어 용기의 접촉문제도 있습니다. 용기에 녹이슬면 닭에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질이 나빠지게 되어 연변으로 산란율도 감소될 것 같군요. 양적인 제한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때 연변의 염려가 있습니다.

윤경: 용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이 더러워져 썩은물을 먹게되면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할 염려가 있으니까요. 여름철에는 이런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도 물통소제를 꼭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